

## 한국전쟁 전후 아동 잡지에 나타난 아동문학 작가군의 남북 분화 과정 연구\*

장 정 희\*\*

### 차 례

- |                                     |                                   |
|-------------------------------------|-----------------------------------|
| 1. 들어가며                             | 1) 『어린이나라』에 나타난 주요 양상             |
| 2. 한국전쟁 전후 남북 아동 잡지류의 아동문학장 비교      | 2) 『소학생』에 나타난 주요 양상               |
| 3. 한국전쟁 전후 남북 아동문학가의 활동 무대 이동 경향 분석 | 4. 한국전쟁 너머: 복원·조명해야 할 몇 아동문학가의 흔적 |
|                                     | 5. 나오며                            |

### 국문초록

본고는 1950년 6월에 발발한 한국전쟁 전후 아동 잡지에 나타난 한국 아동문학 작가군의 남북 분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본 연구는 한국전쟁 전후 남북 아동 잡지류의 창간 및 발행 현황을 살폈다. 한국전쟁 발발 전에 이미 중단된 『어린이』(1948. 5.~1949. 12.)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동 잡지는 '1950년 5월~6월' 한국전쟁을 기점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B5A01038346)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책임연구원, magowood@hanmail.net

으로 일제히 종간을 맞이하였으며, 북한 『아동문학』의 경우도 한국전쟁 기에는 일시 휴간되었다가 다시 1954년부터 발행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기 남북 아동 잡지는 일부 이념적 선호 경향이 얼마간 있었으나 한국 아동문학 문단이 배타적 입장이 아닌 실질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한국전쟁 전 남북 아동문학 잡지에 나타난 아동문학 작가의 이동 현황을 추적해 보았다. 먼저, 『어린이나라』를 주목하여 윤복진(동요)·박태원(소설, 소년소설)·박세영(평론)의 활동 경로를 주요 작품 경향 분석과 더불어 탐색해 보았다. 또 한국전쟁 전 남한에서 발행된 아동 잡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나 북한 『아동문학』 내에서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작가군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으로 정지용, 최병화, 정태병, 현동엽을 주목했다.

본고는 ‘6.25전쟁’이라는 민족 동란으로 인해 새로운 아동문학 건설기를 맞이한 한국 아동문학이 적대적 대치의 문학으로 급선회한 모습을 만날 수 있었으며, 아동문학장 역시도 점차 교류가 없는 단절의 분단 과정으로 정착해 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념의 장벽에 가려 묻혀 있던 한국전쟁 전후 한국 아동문학장 내의 아동문학가를 발굴 조명해 나가는 한편, 남북 아동문학장의 분단을 해소하여 통합적 관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연구 방법을 남북 학술 교류를 통해 도출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주제어 : 한국전쟁, 남북 아동문학, 어린이나라, 어린이, 아동문학, 윤복진, 박세영, 현동엽

## 1. 들어가며

본고는 1950년 6월에 발발한 한국전쟁을 전후로 한국 아동문학장(場)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을 맞이한 우리나라 아동문학이 좌우 이념의 대립과 민족 동란을 겪으며 어떻게 아동문학장이 남과 북으로 편재되어 나갔는지 아동문학 작가군의 활동과 이동 과정을 대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전쟁이 가져온 남북 아동문학장의 분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려는 데 그 일차적인 목표가 있다.

본고가 한국전쟁을 연구 대상의 분기점으로 삼은 것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한국 아동문학은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문단 격랑과 활동공간의 단절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 ‘단절’의 시기를 전후하여 많은 작가들은 어느 하나의 체제와 이념을 선택해야 했으며, 소위 ‘월북’ ‘월남’으로 전향하여 자신의 출신지와 주요 활동지를 떠나야 했다. 이와 같은 특정 시기 한국 아동문학 작가의 무대 이동과 그 역사적 현장은 한국전쟁 전후에 창간·발행된 남북 아동 잡지에 실증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

일제 강점으로부터 독립하여 해방을 맞이한 아동문학가들은 새로운 국가 건설과 미래 어린이상의 주형을 위해 각자 나름대로 지향점을 가지고 수종의 아동 잡지를 창간했다. 『신소년』의 후신<sup>1)</sup>으로 창간된 『새동무』(1945.12.), 일제강점기에 강제 폐간되었다가 해방 후 그대로 제호를 계승하여 복간한 『어린이』(1948.5.)와 『별나라』(1945.12.)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그리고 해방되던 그해 고려문화사 발행 『어린이신문』(1945.12.)이 창간되어 어린이 문화 보급과 재건을 목표로 한 본격 활동도 전개되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대구에서 창간되어 17호까지 간행된 『새싹』(1946.1.)과 『동화』(1947.5. 박영종), 문화당 『소년』(1948.7.), 동

---

1) 박세영, 『조선아동문학의 현상과 금후 방향』, 조선문학가동맹편, 『건설기의 조선문학』, 1946, 97면.

지사 아동원 발행 아동문학 평론 전문지 『아동문화』(1948.8.), 해방 직후 평양 아동문화사에서 발행한 『어린동무』<sup>2)</sup>와 『어린이신문』<sup>3)</sup> 청년생활사에서 발행한 『소년단』과 『아동문학집』<sup>4)</sup> 등이 있었다. 또, 해방 후 북한에서 북조선문학동맹 아동문학 분과 기관지로 창간된 『아동문학』(1947.7.)은 지금까지도 간행되고 있는 최장수 북한의 아동문학 잡지이다.<sup>5)</sup>

여기에 더하여 한국전쟁 전 창간되어 '1950년 6월' 전쟁의 발발과 함께 일시에 중단된 아동 잡지가 있었다. 『소학생』(1947.8.~1950.6.), 『소년』(1948.7.~1950.6.), 『어린이나라』(1949.1.~1950.5.), 『아동구락부(진달래개제)』(1949.3.~1950.6.) 등이 그러한 예이다. 한국전쟁과 그로 인한 남북 분단 고착화가 아니었다면 한국 아동문학장의 모습은 오늘날과 사뭇 달랐을 것이다.

그 동안 한국전쟁 전후 시기를 규명하고자 하는 아동문학 연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관련된 주요 연구는 크게 북한 아동문학 연구, 월북 및 월남 아동문학 작가 연구, 1950년대 아동문학 연구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북한 아동문학 연구에서는 이재철과 원종찬의 성과를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 있다. 이재철은 1995년 '북한 아동문학 연구'를 필두로 『남북 아동문학 연구』를 저술하고 '남북 통일아동문학사 서술'의 시론을 남겼다.<sup>6)</sup> 반면 당시의 '북한 아동문학 연구'는 그 당시 특수 자료 수집의

2) 송수연의 『강훈의 『산막집』 연구-해방기 북한아동문학의 변화양상을 중심으로』(아동청소년문학연구 13호, 2013.12.)에서는 현재 『어린동무』 총 5권을 확인하고, 제1권 제9호(1946. 11.), 제3권 제10호(1948. 11.), 제4권 제4호(1949. 4.), 제4권 제5호(1949. 5.), 제5권 제3호(1950. 3.)의 존재를 소개하고 있다.

3) 이들 아동 잡지는 강효순이 『문학신문』에 쓴 『'아동문학' 창간 열 돌을 맞으며』에 소개해 놓았으나 필자는 실물 확인은 하지 못했다.

4) 언급한 『소년단』(1949)과 『아동문학집』(1950) 역시 원종찬 교수의 『북한의 아동문학』(청동거울, 2012. 65면)에 강소천·장수철의 일부 작품 목록과 함께 언급되고 있다.

5) 언급한 아동 잡지의 팔호 속 연월은 '창간 연월'을 표시한 것이다.

한계로 1981년 이후의 『아동문학』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한국전쟁 전후 시기의 『아동문학』 작가 활동의 조사는 시기적인 면에서 선행 연구의 보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원종찬은 『북한의 아동문학』을 저술하여 일제강점기의 카프 아동문학으로부터 북한 아동문학이 건설되어 가는 과정을 당대 문화사적 맥락과 실물 북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해 냈다.<sup>7)</sup> 이 연구는 북한 아동문학의 시원과 계보, 북조선 아동문학 문단의 건설과 정비 과정을 드러냄으로써 북한 아동문학의 형성 과정을 드러냈다. 본고는 그 흐름의 한 켠에 존재하는 한국전쟁 전후 남북한 아동 잡지에 나타난 작가 활동을 상보적 관점에서 대비해 보고 동시대 남북 아동문학장의 형성 과정을 천착해 보려는 데 변별 지점이 있다.

월북 및 월남 아동문학 작가 연구에서도 비교적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크게 월북 아동문학가로는 이동규·김복원·윤복진·박고경·송완순·강훈·권환·박태원·정태병 연구<sup>8)</sup>가 이루어졌으며, 월남 아동

6) 이재철, 『남북 아동문학 연구』, 박이정, 2007.

7) 원종찬, 『북한 아동문학』, 청동거울, 2012.

8) 김명석, 『이동규 소설 연구』, 『우리문학연구』 23호, 우리문학회, 2008.2.

김진희, 『김복원(金北原)의 문학사적 복원과 해방기 활동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68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9.

원종찬, 『동요시인 윤복진 연구-북한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동화와번역』 17호, 건국대 동화와번역연구소, 2009.

류덕제, 『아동문학가 박고경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5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9.12.

\_\_\_\_\_, 『윤복진의 아동문학과 월북』,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7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5.12.

송수연, 『강훈의 『산막집』 연구-해방기 북한아동문학의 변화양상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3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3.12.

우지현, 『송완순 연구-송완순의 생애와 동요, 아동문학 평론 활동을 중심으로』, 『동아인문학』 35호, 동아인문학회, 2016.

이동순, 『정태병 동화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26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014.5.

이순옥, 『권환의 삶과 문학 활동』, 『어문학』 95호, 한국어문학회, 2007.3.

문학가로는 강소천·박홍근·장수철 연구<sup>9)</sup>가 있다. 이러한 연구 현황으로만 본다면 얼핏 월남보다는 월북을 택한 아동문학가 행렬이 더 많았다는 것으로 비치기도 한다. ‘월북’ 또는 ‘월남’을 택한 아동문학가 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작가는 ‘윤복진’(월북)과 ‘강소천’(월남)이다. 월북 작가 연구는 1992년 ‘해금 조치’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일차적으로 문학사적 복원과 작가 연보 정리, 필명 연구, 작품 발굴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월북 아동문학가 연구는 점차 새로운 자료 발굴 및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다. 월남 아동문학가 조명은 주로 강소천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적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월남 아동문학가 대열에는 강소천 외에도 김요섭, 장수철, 박홍근 등도 있지만, 특히 강소천의 경우, 월남 이후 반공의식의 측면과 재북 시절 작품에 대한 발굴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성과를 통해 본 연구는 북한 아동문학의 형성 과정과 월북 또는 월남 아동문학가의 작품 활동 이력에 대해 가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작가 연구 또는 아동 잡지 단위의 연구만으로는 한국전쟁과 남북 분단을 통해 이루어진 남북 아동문학장의 변화 과정을 구체적인 현장으로 확인하기란 쉽지 않았다. 공백으로 남아 있는 작가군도 다수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개별 단위의 잡지들 속에서 서로 교통하고 접속했던 아동문학 작가들의 연결망을 종합적으로

유승환, 『해방기 박태원과 소년삼국지』, 『구보학보』 21집, 구보학회, 2019 685

9) 원종찬, 『강소천 소고-해방기 북한체제에서 발표된 동화와 동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3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3.12.

마성은, 『이북에서 발표한 강소천의 소년시·동요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28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015.5.

김종현, 『박홍근의 월남 동기와 월남 직후 동시의 주체 형성』, 『한국아동문학연구』 31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016.12.

장정희, 『장수철 초기 동시론』, 『아동문학평론』 41권 1호, 아동문학평론사 2016.

신정아, 『해방 후(1945-1950) 문맹퇴치를 주제로 한 북한 아동문학의 전개양상과 창작방법-월남전 강소천 작품과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기술훈』 21호, 한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훈연구소, 2016.8.

견주어 한국 아동문학장이라는 큰 범위에서 남북 분단 아동문학 지형을 그려내는 단계의 작업이 요청되고 있다.

한편, 한국전쟁 ‘전후’를 기점으로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남북 아동문학장의 건설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쟁 와중에 창간된 『아이생활』 후신<sup>10)</sup> 『새벗』(1952.1.), 『소년세계』(1952.7.), 『학원』(1952.11. 오영민 편집), 피난지 부산에서 창간된 『어린이 다이제스트』(1952.11. 강소천 주간) 등의 아동 잡지류까지 검토하여 분석하는 작업이 후속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 전후를 기점으로 한 남북 아동문학장의 주요 무대였던 아동 잡지류에 대해 그 대강의 윤곽을 살펴본 것이지만, 언급한 자료에 대한 총량적인 수집과 정리, 자료의 실물 복원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한국전쟁 전후 아동 잡지에 나타난 아동문학 작가군의 남북 분화 과정을 살피기 위한 일차적 연구로 남한 아동 잡지류 『어린이나라』(1949.1.~1959.5.), 『어린이』(1948.5.~1949.12.), 『소학생』(1947.8.~1950.6.), 『소년(문화당)』(1948.7.~1950.6.)과 북한을 대표하는 아동 잡지 『아동문학』(1947.7.~ )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당대 남북 아동문학 작가군의 공존과 이동 양상을 대비의 관점으로 살펴보고 그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에 있어 본 연구가 한국전쟁 ‘전후’를 기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구분을 통해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형성되었던 남북 아동문학장의 완충적 공간을 보다 객관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 좌우 이념이 공존하고 교류한 무대로서 남북 아동 잡지의 작가군 활동 양상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시도가 반영된 것이다. 그리하여 공간의 공존 상태에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해 가며 남과 북으로 점차 분화, 이동해 갔던 당대 아동문학가들의 활동 양상을 따라가 본다. 분단 아동문학사의

10) 이재철, 『세계아동문학사전』 ‘새벗’ 항목. 계몽사, 1989, 169면.

극복과 통일 아동문학사 서술의 기초 작업을 위한 남북 아동문학장의 연결 작업으로서 그 역추적 조사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까닭이다.

자료 보존은 물론 수집 단계부터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남북 아동문학 연구 상황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어진 아동문학 자료의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추출해 보고자 한다. 류덕제의 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해방 직후는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역동적인 상황이었기에 시간적 추이를 고려하지 않은 좌우파 구분은 일면성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한국전쟁 전후 한국 아동문학이 지향했던 ‘여러 가능성’을 진단하고 통합의 관점을 포섭해 내는 것 또한 본 연구에 주어진 과제일 것이다.

## 2. 한국전쟁 전후 남북 아동 잡지류의 아동문학장 비교

본 연구가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은 남북 아동 잡지류를 창간 시기별로 거론하면, 『주간소학생(개재 소학생)』(1947.8.~1950.6.), 『어린이』(1948.5.~1949.12.), 『소년(문화당)』(1948.7.~1950.6.)<sup>11)</sup>, 『어린이나라』(1949.1.~1950.5.), 그리고 북한에서 창간되어 지금까지 발행되고 있는 아동 잡지는 『아동문학』(1947.7.~ ), 『어린동무』(1946.3.~1948.11.), 『소년단』(1949.6.~1950.5.(?))<sup>12)</sup> 등이다. 살펴보면, 현재 『어린이나라』와 방

11)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주)문화당 발행 『소년』은 창간호(1948년 7월호)부터 17호(1949년 12월호)까지이며, 4호(1948년 10·11월호)는 현재 결호로 파악된다.

12) 북한 아동 잡지 가운데 본 연구가 실물로 확인한 것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소장되어 있는 『아동문학』 자료이며, 언급된 『어린동무』와 『소년단』 관련 자료는 『북한 아동문학』(원종찬, 청동거울, 2012)을 통해 확인한 자료임을 밝혀 둔다.



기환 주간의 『소년』은 아동문학 자료의 집대성 『세계아동문학사전』(이재철 편, 1989)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앞으로 남북 아동 잡지류에 대한 포괄적인 서지 작업과 그 해제 작업이 시급히 요청된다 하겠다. 또한 북한 아동 잡지 『아동문학』·『어린동무』·『소년단』 등의 자료는 결호 보완 및 정부 차원의 예산 수립과 자료 수집이 병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거론한 남북 아동 잡지류는 해방 후 한국 아동문학장의 형성과 남북 분화 과정을 동시에 보여 주는 의미 있는 사료들이다. 원종찬은 북한 아동문학 연구에서 “미처 월북하지 않은 작가들은 정부 수립 후에 『아동문학』, 『아동구락부』, 『어린이나라』 등에서 문화 계렬라적인 활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6.25전쟁 중에는 대부분 월북”하였으며, 이들은 “좌우합작 노선을 도모한 이 계열의 중심축”<sup>13)</sup>이라고 쓴 바 있다. 본고의 연구 대상의 하나인 『어린이나라』가 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 계열의 ‘문화 계렬라적인 활동’을 보여 주었다면, 그 주체들이었던 참여 작가들의 작품 세계는 어떻게 변화되어 갔을지 흥미로운 주제이다.

관련하여, 본 연구는 『어린이나라』에 대한 일차적 연구로 서지적 고찰을 시도한 바 있다.<sup>14)</sup> 『어린이나라』를 무대로 활약한 아동문학 작가군의 양상을 보면, 남과 북이 분단 비극을 맞기 전, 각종 이념 대립과 장벽 속에서도 아동문학가들이 상호 접촉하며 교류한 현장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 아동문학 작가군의 양상을 대표적으로 거론해 보면, 월북 아동문학가인 윤복진·최병화·박태원·임원호, 월남 아동문학가로 대표되는 김요섭, 한국전쟁 중 남북되었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정지용, 함안금융조합 근무 시절 ‘독서회’ 사건(1934년 2월)으로 검거되어 이념적으로 월북을 지향했던 이원수, 낙천적 동심주의뿐만이 아닌 ‘사회주의 운동가 아버지의 영향으로 현실 참여 경향을 띠기도 했던’<sup>15)</sup> 윤석중까지

13) 원종찬, 앞의 책, 40-41면.

14) 장정희, 『아동 잡지 『어린이나라』(1949.1~1950.5)의 서지적 고찰』, 『근대서지』 2018년 겨울호, 근대서지학회, 2018.

가 대표적인 인물 양상으로 조사되었다. 즉, 『어린이나라』는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직전까지 다양한 아동문학장의 스펙트럼을 보여 주었던 셈이었다.

이러한 아동 잡지의 발행과 관련하여 해방 공간 남북 정부 수립 과정을 짚어보면, 1946년 2월 북한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통일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활동하는 것을 단서로 위원장 김일성, 부위원장 김두봉을 선출, 1947년 2월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수립한다. 북한은 1948년 남한에 단독정부가 수립되자, 곧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실시하고 헌법을 채택함으로써 같은 해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남북 정권 수립 과정을 견주어 볼 때 『어린이나라』의 창간은 북한 정부 수립 그 이듬해인 1949년 1월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시기는 고한승 역시 남한 정부 수립 전에 『어린이』를 복간시켜 1948년 5월 ‘123호’부터 시작해 발행을 이어가고, 『어린이』 복간 두 달 뒤인 7월에는 방기환이 『소년』을 창간, 발행을 이어가고 있는 때였다. 또한 윤석중 주재 『주간소학생』은 『어린이』·『소년』보다 1년 앞선 시기인 ‘1947년 8월’에 이미 창간하여 잡지 발행을 이어 오던 형편이었다. 윤석중·고한승·방기환 등 각각 아동 잡지를 주재하던 아동문학가들은 그 나름의 지향하는 바에 있어 각도의 차이가 일정 부분 있을지언정, 그 수록 내용을 보면 필진 선정과 섭외에서 서로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한국전쟁 직전까지 발행된 남북 아동문학 잡지의 작가군 분포 양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5) 김제곤, 『윤석중 연구』, 청동거울, 2013.

김제곤은 윤석중에 대해 실제로 ‘적극적인 현실의식을 지닌 인물’이었으며, 현실과 동떨어진 천진무구한 ‘낙천적 동심주의’라는 프레임으로만 평가해선 안 된다고 하였다.

[표 1] 한국전쟁 직전 발행된 남북 아동 잡지에 나타난 한국 아동문학장(場)

	아동 잡지	아동문학가의 작품 활동 양상	비고
남 한	어린이나라 (1949.1.~ 1950.5.)	<p>(동요·동시) 박은중 <b>임원호</b> 최계락 현 덕 이종기 우효중 권오준 임인수 김원룡 <b>정지용</b> 이원수 윤석중 이병철 <b>윤복진</b> 돈 식 권태웅 권태웅 박영중</p> <p>(동화·소년소설) <b>윤복진</b> <b>최병화</b> 정인택 이성표 이원수 임인수 김경모 박화복 박영중 정비석 채규철 정원섭 <b>김요섭</b> 박복성 <b>박태원</b> 노일영 방기환 김요섭 두루미 박영준</p>	<p>[월북]임원호 윤복진 박태원 [남북]정지용 [월북(불명)]최병화 [월남]김요섭</p>
	어린이 (1948.5.~ 1949.12.)	<p>(동요·동시) <b>현동엽</b> 윤석중 최영희 이원수 이효선 황홍규 박영중 김호준 이태선 김광현 유달영 한양근 김 욱 박은중 김후중 이원수 권오준</p> <p>(동화·소년소설) 진장섭 박준명 이영철 마해송 고한승 <b>박인범</b> 홍은순 이하진 이동찬 이호준 임서하 이동찬 이수령 문영구 정비석 <b>현동엽</b> 광하신 <b>정태병</b> 박인해 이성표 김소엽 이영수 임 혁 정경해</p> <p>(동극) 고한승 김진수 방기환 김소엽</p>	<p>[재북]현동엽 [재북]박인범 [월북(불명)]정태병</p>
	(주간)소학생 (1947.8.~ 1950.6.)	<p>(동요·동시) 윤석중 이원수 <b>박세영</b> <b>신고송</b> 이영철 박노춘 김종길 조지훈 박두진 박영중 박명준 윤덕상 이상노 권태웅 박은중 김상옥 한인현 이태선 박병엽 유달영 <b>현동엽</b> 한행수 김인수</p> <p>(동화·소년소설) 피천득 유석빈 이영철 전영택 조풍연 조우호 이희경 <b>최병화</b> 조 립 <b>박태원</b> 주요섭 이문호 박 철 박영준 여수영 박영식 고한승 <b>김요섭</b> 이성표 정인택 박복성 정비석 <b>최병화</b> <b>엄홍섭</b> 박인해 <b>김요섭</b> 장두운</p> <p>(동극) 유석빈 <b>신고송</b> <b>함세덕</b> 진우춘 박일우</p> <p>(평론) <b>김동석</b> 박영중 <b>정지용</b> 이원수 박영중 이병기</p>	<p>[월북]박세영 신고송 박태원 엄홍섭 함세덕 [재북]현동엽 [월북(불명)]최병화 김동석 [남북(불명)]정지용 [월남]김요섭</p>
	소년(문화당) (1948.7.~ 1950.6.)	<p>(동요·동시) 조미리 이종성 이원수 정인섭 남대우 이태선 박은중 조풍연 김윤성 윤석중 박목월 <b>임원호</b> 임인수 박화복 김소엽 이태선 권태웅 조지훈 박은중</p> <p>(동화·소년소설) 방기환 <b>박태원</b> 김소운 송근영 <b>최병화</b> 박 철 이영철 정비석 박계주 <b>양미립</b> 유 호 김래성 김동리 최태웅 <b>홍구범</b> <b>임원호</b> 오순일 이종환 한초인 최인옥 박화복</p> <p>(동극) 이춘일 방기환 박화복 박은중 이종환</p> <p>(평론) 이원수 조미리</p>	<p>[월북]박태원 임원호 양미립 [월북(불명)]최병화 [남북]홍구범</p>

북 한	아동문학 (1947.7.~ )	<p><b>한국전쟁 발발 전 (1947.7.~1949.12.)</b></p> <p>(동요·동시)  <b>박세영</b> <b>리정구</b> <b>강승한</b> <b>윤동향</b> <b>양명문</b> 한 늘 리호남                  배 풍 김성수 <b>장 수(장수철)</b> <b>남용손</b> <b>강소천</b> 송순일                  최석승 한 기 리향엽 리철제 리호남 황 민 강동일  <b>박경중</b> 김연호 <b>김복원</b> 태 민</p> <p>(동화·소년소설)  <b>강 훈</b> 이호남 <b>리원우</b> 최석승 강효순 리진화 김련호                  원도홍 박태영                  남궁만 김도빈 리자용 <b>송창일</b> 김명강 한명은 김신복                  정순복 리명희 한봉식 김 귀 홍문일 <b>천청송</b> 김창순                  립성호 조병수 유경태 현룡군</p> <p>(동극)                  김순석<sup>16)</sup> 박태영 박화순</p> <p>(평론)  <b>리동규</b> <b>박세영</b> <b>김우철</b> <b>송창일</b></p>	<p>[월북]박세영 임원호                  윤복진 리동규                  [재북]남용손 강승한                  김우철 김조규 이 찬                  김복원 정서춘 윤동향                  천청송 리원우 송창일                  리정규                  [월남]장수철 강소천                  박경중</p>
		<p><b>한국전쟁 발발 후 (1951.9.~1954.12.)</b></p> <p>(동요·동시)                  박석정 <b>임원호</b> 리 맥 송봉렬 <b>김우철</b> 류연옥 김찬홍                  김 렬 <b>윤복진</b> <b>리 찬</b> 남용손 리효운 <b>박세영</b> 김정숙                  우봉준 김순석 <b>윤복진</b> 윤동향 김광수 김순일 송봉렬                  주태순 김경태 김병두 <b>정서춘</b> 열재원 김영일 김우철  <b>김조규</b> 김용학 <b>박인필</b> 립석근 김승건 박육현 원용건                  강립석 김유라 이정자 리순영 황 민 김응순</p> <p>(동화·소년소설)                  강효순 리진화 김련호 원도홍 박태영 남궁만 김도빈                  리자용 <b>송창일</b> 김명강 한명은 김신복 정순복 리명희                  한봉식 김 귀 홍문일 <b>천청송</b> 김창순 립성호 조병수                  유경태 현룡군</p> <p>(동극)                  박명철 박우호 남궁만</p> <p>(평론)  <b>박세영</b> <b>송창일</b></p>	
	어린동무 (1946.3.~ 1948.11.)	<p>(동요·동시)  <b>박세영</b> 박석정 <b>이정구</b> 배 풍 <b>강승한</b> 윤동향 배신영                  고운배 <b>이성훈</b> <b>신고송</b> 김찬홍</p> <p>(동화·소년소설)                  리호남 리진화 <b>송창일</b> 신영길 신승봉 전경순</p>	<p>[월북]박세영 이성훈                  신고송                  [재북]강승한 리정구                  송창일</p>
	소년단 (1949.6.~ 1950.5.?)	<p>(동요·동시)                  리원우 류연옥 <b>강소천</b> 정명길 최석승 <b>박세영</b> <b>장수철</b></p> <p>(동화·소년소설)                  리원우 류연옥 <b>강소천</b> 정명길 최석승 강동호 <b>장수철</b>  <b>박세영</b> 백태산 강효순</p>	<p>[월북]박세영                  [월남]강소천 장수철</p>

16) 1949년 1월호 『아동문학』 ‘조소친선 특집호’: 『문학예술』, 1949.1.: 원종찬, 『북한 아동문학』, 청동거울, 2012. 재인용.

위의 표 내에서 주로 강조 표시한 인물은 ‘월북’ ‘남북’ ‘재북’ ‘월남’ 등에 해당하는 아동문학가이다.<sup>17)</sup> 한국전쟁 발발 전에 이미 중단된 『어린이』(1948.5.~1949.12.)를 제외한 나머지 아동 잡지는 모두 ‘1950년 5월~6월’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중단을 맞이하고 있다. 예기치 않은 민족 동란의 발발로 인해 갑자기 문을 닫게 된 이 시기 남북 아동 잡지류는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일부 이념적 지향이 얼마간 있었다 하더라도 한국 아동문학 문단이 배타적 입장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잘 보여 준다.

특히 작가군의 활동 양상을 두고 볼 때, 『(주간)소학생』과 『어린이나라』는 다소 월북 아동문학가 활동 양상이 두드러지며, 『어린이』와 『소년』은 온건하면서 간헐적인 교류 양상이 특징적이다. 북한에서 발행하던 『아동문학』(1947.7.~현재), 『어린이동무』(1946.3.~1948.11.?), 『소년단』(1949.6.~1950.5.?)의 경우는 강승한·리정구 등 재북 아동문학가들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면은 체제 이념적 지향이라는 일면 외에도 아동문학가들이 ‘재북’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 잡지를 무대로 활동했으리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 준다.

한편으로, 전체 남북 아동 잡지를 무대로 두드러지는 활동 작가는 월북한 박세영, 『어린이동무』에서는 월북한 이성홍 아동문학가, 『소년단』에서는 강소천·장수철 같은 월남 아동문학가의 활동이 눈길을 끈다. 다음

17) 본 연구자는 해방기부터 한국전쟁 전후 남북 아동문학가의 연보를 계속 조사해 나가는 중이다. 북쪽 출생지이면서 남쪽에 남아 계속 활동해 오고 있는 인물은 따로 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언급해 둘 것은, 사실상 ‘재북’이라는 용어는 ‘재남’에 대응하는 개념이지만, 남한 아동 잡지류에서는 굳이 ‘재남’이라는 표현을 번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북한 아동 잡지를 무대로 활동한 대다수 작가 역시도 ‘재북’ 아동문학가로 잠정 추정되지만, 남한에서 발행된 아동 잡지류에서 두루 활동한 인물을 부각시키기 위해 특정 인물에만 강조 표시를 해 두었다. ‘재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연구자의 선별적 용어 사용은 일정한 한계가 없지 않으나, 아동문학가 전체를 다룰 수 없는 점으로 인해 남한의 관점에서 편취한 점을 일부 참고 바란다.

장에서는 한국전쟁 전 남북 아동문학 잡지에 나타난 아동문학 작가의 이동 현황을 추적해 보기로 한다.

### 3. 한국전쟁 전후 남북 아동문학가의 활동 무대 이동 경향 분석

1992년 해금 조치가 되기 전 분단 체제의 한국 아동문학장에 대해서는 이재철의 『한국현대아동문학사』(1978)와 『세계아동문학사전』(1989)를 통해 정비되었다. 나아가 본고는 북한 아동문학의 건설과 월북 작가 연구를 해 온 원종찬의 『북한 아동문학』(2012)과 류덕제의 『한국 현실주의 아동문학 연구』(2017)를 바탕으로 그 동안 남한 아동문학사에 배제되어 기술되지 못했던 아동문학가를 중심으로 한국전쟁 전 정부 수립 과정에서 실재했던 ‘한국 아동문학장’을 개괄적이거나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한국전쟁 전에 창간되어 한국전쟁으로 발행이 중지된 잡지로 대표적인 『어린이나라』와 『소학생』을 중심으로 분화되어 간 남북 아동문학 작가의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 1) 『어린이나라』에 나타난 주요 양상

『어린이나라』를 보면 윤복진, 정지용, 박태원, 현 덕, 송돈식, 안희남, 정현웅, 임원호 등 월북, 남북 작가들이 포진되어 있어 특히 한국전쟁 전후의 아동문학장의 변화 과정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표에서 강조 표시를 한 주요 아동문학가 인물을 중심으로 한국전쟁 전후 한국 아동문학 작가단의 활약 무대의 이동과 작품 활동 양상을 살펴본다.

『어린이나라』는 매호 동요와 동시, 동화와 소년소설을 수록하여 해방 후 아동문학 작품 발표의 주요한 무대 역할을 담당했다. 『어린이나라』를

중심으로 활약하던 아동문학가 가운데 윤복진·임원호(동요), 박태원(소설)은 월북하였고, 정지용은 남북, 최병화는 ‘이원수와 함께 월북을 시도하였으나 이원수의 권유로 남하하는 중에 사망한 것’<sup>18)</sup>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왔다. 이원수는 해방 후 남한의 대표적인 아동문학가로 활동의 기반을 마련한다. 전쟁이 일어나기 한 달 전인 ‘1950년 4월 9일’에는 김영일의 자유동시집 『다람쥐』의 출판기념회를 김철수·임원호·박목월·김원룡·박인범·윤복진·이원수·최병화 등이 발기인이 되어 열어 주었는데,<sup>19)</sup> 좌우 이념에 상관없이 교류하였던 당시의 아동문학 문단의 모습을 보여 준다. 윤복진·임원호·박인범은 북한 『아동문학』 잡지로 작품 활동 무대를 옮겨 북한 아동문학 문단에 편입해 간 것이 작품 발표를 통해 확인되며, 이 가운데 박인범의 작품 활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명이 필요하다.

윤복진(1908~1991)<sup>20)</sup>은 『어린이나라』에서 동요와 동화를 발표하다가 한국전쟁의 와중인 1951년<sup>21)</sup>에 북한 『아동문학』 잡지에 글이 이동하게 된다. 윤복진은 해방 후 <조선문학가동맹> 아동문학분과위원회 사무장을 맡았으며, 동요집으로 『꽃초롱별초롱』(아동예술원, 1949), 선집으

18) “1951년 이원수와 함께 월북을 시도하였으나 이원수의 권유로 남하하다가 폭사하였다.”

덕제, 『한국아동문학비평사를 위하여』, 보고서, 2021. 210면.

19) 『문화 다람쥐 출판기념회』, 동아일보, 1950.4.7.

20) 윤복진(1907~1991)은 1914년 대구 회원보통학교와 계성학교, 일본 니혼대학 전 문부와 1936년 호세이대학 법문학부 영문과를 졸업했다. 1924년 윤석중, 이원수, 서덕출, 신고송, 최순애, 이정구, 최경화, 소용수 등과 소년문예단체 <기쁨사> 동인 활동을 하였으며, 1926년 서덕출, 신고송, 문인암, 송완순, 승응순 등과 대구 <등대사>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해방 후에는 <조선문학가동맹> 아동문학분과위원회 사무장을 맡고, 1950년 월북하여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로 활동했다.

류덕제, 『한국아동문학비평사를 위하여』, 보고서, 2021. 138-139면 참조.

21)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 『아동문학』은 1951년 9월호(8집)이다. 6집은 1949년 12월이다. ‘7집’이 한국전쟁 전에 발행된 것인지, 한국전쟁 발발 후 발행된 것인지는 향후 자료가 발굴되어야 알 수 있다.

로 『세계명작아동문학선집 1』(아동예술원, 1949), 『(세계명작동화선집) 노래하는 나무』(아동예술원 1950) 등을 냈다. 월북하기 전 그는 『어린이 나라』를 중심으로 활동을 펼쳤다. 윤복진이 한국전쟁 발발 후 북한 『아동문학』으로 바로 작품 무대를 옮긴 것은 그의 이념적 지향이 이미 정해져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어린이나라』 1949년 6월호에 발표한 윤복진의 「파아란 세상」은 그의 월북 전에 발표한 마지막 작품일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이 동시와 「피꼬리」라는 그의 작품은 한국전쟁 전 그의 동시가 추구한 심상을 대표적으로 보여 준다.

유리창이 하나/ 파아란 유리창이 하나//  
 파아란 하늘이 보이고/ 파아란 구름이 보이고//  
 유리창이 하나/ 파아란 유리창이 하나//  
 파아란 사람이 보이고/ 파아란 강아지가 보이고//  
 유리창이 하나/ 파아란 유리창이 하나//  
 해만 뜨면 아가야는/ 파아란 세상을 내다본다.

- 윤복진, 「파아란 세상」 전문.

피꼬리/ 피꼬리/ 노랑옷 입어도/ 마음은 파랗다//  
 피꼬리/ 피꼬리/ 파아란 하늘 아래/ 파아란 산속에 산-다//  
 피꼬리/ 피꼬리/ 파아란 열매 따먹고/ 파아란 이슬 따먹고//  
 피꼬리/ 피꼬리/ 파아란 나무에서/ 파-란 노래 부르고//

- 윤복진, 「피꼬리」 전문.

「파아란 세상」과 「피꼬리」는 1년의 간격을 두고 발표되었다. 「파아란 세상」에서 윤복진이 그리는 ‘파아란 세상’이란 미래의 희망적인 세계이다. 한편 동요 「피꼬리」(1949.7)에서 피꼬리는 ‘노랑옷’을 입고 있지만, 그 마음은 ‘파랗다’라고 표현된다. 두 작품에서 보여주듯, 한국전쟁 전 윤복진의 동시에 나타난 시적 이미지와 운율은 단순 소박하며 그 정서는 비교적 낙천적이다.

그러나 한국전쟁 후 1951년 9월호 북한 『아동문학』에 발표한 윤복진



의 동요는 '월북' 이전의 동심 세계의 묘사와 판이한 모습을 보여 준다. 북한 『아동문학』에 발표한 그의 초기 동요들은 「복쭈의 불길처럼」(1951.9.), 「오늘 아침 순남이」(1954.1.2월호), 「해군 형님 댁기」(1954.10.), 동시 「나는 지금 수직을 서 있다」(1954.11.), 「붉은 넥타이를 매면서」(1954.12.) 등이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북한 『아동문학』 자료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윤복진 동요 「복쭈의 불길처럼」(1951.9.)은 제목에서부터 전의를 일으킨다. 동요 「해군 형님 댁기」(1954.10.), 동시 「나는 수직을 서 있다」(1954.11.)는 이미 전쟁은 끝났지만 휴전 상태의 적의감을 표현한다.

나는 지금, 수직을 서 있다……//  
동무들은 야영대 천막 안에서/  
머리들을 나란히 형제처럼 누워 잔다.//  
나는 천막 둘레를 두 번째 돌아본다  
우리들은 어깨에 총을 매지 않았으나  
마음에는 따발총을 힘껏 잡고 서 있다//  
나는 지금, 수직을 서 있다……//  
동무들의 베개를 또 한 번 고쳐 베주며  
차버린 담요들을 돌아가며 덮어준다.

- 윤복진, 「나는 지금 수직을 서 있다」 부분

학교 가는 길에서/ 해군 형님 만났네/  
어깨동무 나란히/ 우리들은 걸었네//  
원썩을 무찌르던/ 이야기도 들었네/  
용감한 해군 형님/ 한 동무가 되었네//

- 윤복진, 「해군 형님 댁기」 부분.

월북하면서 변화해 간 한 아동문학가의 심적 변화와 그로 인한 창작 태도의 변화를 잘 보여 준다. 확연히 윤복진의 동요 동시는 낙천적 동심을 탈피하고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바라보는 동지애를 강하게 표현하

고 있다. ‘총’을 메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따발총’을 힘껏 잡고 있다는 장면에서는 사상적 적대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국전쟁 전 『파아란 세상』의 ‘파아란’ 색조 감각을 그리던 윤복진은 동시 『붉은 넥타이를 매면서』에서와 같이 표제에서부터 벌써 ‘붉은’ 색조 감각의 의지적 동심을 침투시키게 됨을 볼 수 있다.

박태원(1909~1986)<sup>22)</sup>은 한국전쟁 당시 종군작가로 참여하였다. 그는 1955년 평양문학대학 교수를 지내며 ‘잔존 남로당계 숙청 여파’로 평안남도 강서 지방으로 추방되었다가 1960년 복귀되었다. 박태원은 ‘6.25 전쟁 중 월북’<sup>23)</sup>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태원은 『어린이나라』에 동화 『아빠가 매맞던 이야기』(1949.8.), 『골목대장』(1949.10.), 『소꿉질』(1950.5.)을 발표하고, 『소학생』에는 역사소설 『이순신장군』(1946.11.~1947.11. 20회)과 『소년 삼국지』(1948.1.~1949.3. 13회)를 연재하고, 『소년』 창간호에 ‘조선사회’ 『소년 김유신』(1948.7.)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나라』에 발표한 동화 『소꿉질』(1950.5.)은 박태원이 월북하기 전에 발표한 마지막 동화로 추정된다.

그래 정순이는 다시 주인이 되어 가지고,  
 “저어, 박람회 구경 가셨습니까?”  
 기남이. “아니요.”  
 정순이는 잠깐 생각하다가 조감지에 담은 과자 두 개를 내어 놓고,  
 “이 고사떡 좀 잡수시렵니까?”  
 하니까, 기남이는,  
 “아니요.”  
 하다가, 얼른 커다란 소리로,

22) 박태원(1909~1986)은 경성 종로에서 출생했고, 경성사범부속보통학교를 거쳐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에 입학, 17세 무렵부터 학교를 휴학하고 외국문학을 탐독했다. 1929년 도쿄 호세이대학 예과에 입학하였으나 중퇴했다. 1933년 이상, 이태준, 정지용, 김기림 등과 <구인회> 활동을 했으며, 6.25전쟁 중 월북하였다. 류덕계, 위의 책, 90면 참조.

23) 류덕계, 위의 책, 90면 참조.

“네——.”

하고 대답하고, 부리나케 과자를 한 개 집어 먹었습니다.

- 박태원, 『소꿉질』 부분.

어린 기남이와 정순이가 소꿉놀이를 한다. 정순이가 연이어 “네”라는 대답만 하자 기남이는 그러면 재미없으니 더러 “아니오”라고 하란다. 그래서 정순이는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다가 고사떡이 나오자 얼른 “네”라고 대답하고 집어먹어 버렸다는 내용이다. 천연한 진솔과 생동감 넘치는 어린이들의 심리가 현실감 있게 표현되었다.

## 2) 『소학생』에 나타난 주요 양상

박세영<sup>24)</sup>은 일제강점기 카프의 맹원으로 활약하였으며, 해방 후 1945년 <조선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 결성에 참여하고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946년 <조선문학건설본부>와 <조선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의 통합체인 <조선문학가동맹>이 결성될 때에도 중앙집행위원이 되었다.

윤석중이 주재하던 『소학생』에 남긴 박세영의 평문 『어린이 없는 어린이날-해방 뒤 첫 어린이날을 마치고』(1946.5.20.)와 동요 『떡마전』(1946.2.18.)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두 작품은 박세영이 ‘1946년 6월’<sup>25)</sup> 월북하기 직전에 남한에서 발행하던 아동 잡지에 남긴 마지막 작

24) 박세영(1902~1989) 경기도 고양에서 출생. 1917년 배재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3.1운동 때 퇴학. 학적부에 따르면 1920년 4월 3학년에 편입하여 1922년 3월 졸업. 『별나라』를 편집하면서 천도교 계열 『어린이』와 대립하였다. 1930년 12월, 이주홍, 신고송, 엄홍섭, 이구월, 손풍산, 양우정 등과 『무산소년』을 발간하기도 했다. 1946년 6월 월북 후 동시집 『박세영 동시선집』 등을 남겼다.

류덕제, 위의 책 80-83면 참조.

25) 류덕제의 『한국아동문학비평사를 위하여』에 소개된 박세영 항목에는, 그의 월북 시점을 ‘1946년 6월’로 특정하고 있다.

류덕제, 위의 책 80-83면 참조.

품일 것으로 추정된다. 박세영의 글은 『소학생』 활동 이후 북한 아동문학 건설기의 『아동문학』 창간호 1947년 7월호에 동요 「강물처럼」과 함께 평론 「건설기의 아동문학-동요 동시를 중심으로 하여」가 발표됨으로써 본격적으로 북한 아동문학계에 두각을 나타낸다. 당시 급선회한 박세영의 행보는 한 개인의 결정이라기보다 북한 ‘건설기의 아동문학’을 위한 카프 조직 내의 계획과 전략으로 움직여 나갔으리라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소학생』에 발표한 박세영의 월북 이전 동요 「넉마전」을 보자. 이 동요는 박세영이 월북하기 전 남한 아동 잡지에 남긴 마지막 작품으로 추정된다.

“사갑쇼, 사갑쇼/ 日本旗를 사갑쇼/ 싸게 파니 사갑쇼”//  
 지나가던 갓쟁이/ 만적만적하다가/ 팽개치고 갑니다.//  
 팔다 팔다 못하여/ 기도 팔고 갔는지//  
 넉마전의 일본기/ 초라도 하다//

- 박세영, 「넉마전」 전문

‘넉마전’(넝마전: 인용자 주)은 낡고 헤져서 입지 못하게 된 옷이나 천 조각 따위를 파는 가게를 말한다. 조선을 강점해 있던 일본의 국기가 해방이 되자 아무리 “싸게” 팔아도 가치가 없어 “팽개치고” 간다는 풍자적인 작품이다. 해방 직후의 세태와 더불어 박세영의 반일 감정이 풍자적으로 형상화된 동요이다.

윤복진(동요), 박태원(소설, 소년소설), 박세영(평론)과 같은 월북 아동문학가 외에도, 본 연구는 위의 표에서 월북 아동문학 작가군으로 ‘임원호·신고송·엄홍섭·함세덕·양미림’, 재북 아동문학 작가군으로 ‘현동염·박인범·강승한·남응손·김우철·김조규·이 찬·김복원·정서춘·윤동향·천청송·리원우·송창일·리정규’, 월남 아동문학 작가군으로 ‘강소천·박경중·김요섭’ 등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본고는 ‘월북/

남북'이 모호한 채 불명 상태로 사라진 작가군으로 본 연구의 조사 범위 내에서 '최병화·김동석·정지용·홍구범' 등을 거론하였다.

이와 같은 작가군의 분포와 관련하여, 북한 『조선문학』 1947년 12월호에 발표한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sup>26)</sup> 전문 분과 위원 명단>을 보기로 하자. 1947년 당시 북한 아동문학 건설기의 '아동문학 위원'으로는 '송창일, 박세영, 송영, 신고송, 강훈, 이동규, 정청산, 강승한, 강소천, 노양근, 운동향, 이호남' 등이 언급되고 있다. 결국 본고가 '재북'으로 분류한 아동문학 작가단의 경우, 자연스럽게 지역에 정착하면서 북한 아동문학 문단에 흡수되어 나간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사정은 결국 '재남' 아동문학 작가단의 경우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셈이 된다.

본 연구가 '국가지식포털 북한지역정보넷'<sup>27)</sup>에서 제공한 자료에서 살펴본 바, 북한 아동문학 건설기에 활동한 '재북' 아동문학가의 출신지 현황을 보면, 노양근은 '황해도 금천(金川)'<sup>28)</sup>, 강승한은 '황해도 신천', 김복원은 '함경남도 홍원군', 송창일은 '평안남도 평양',<sup>29)</sup> 이동규는 '함경북도 청진시', 강훈은 '황해남도 장연군'<sup>30)</sup>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1960년대 나온 윤세평의 『현대조선문학선집(아동문학집)』(1960)을 보면, 권환·엄세섭·신고송·박아지·정청산·안준식·김복원 등 『별나라』와 『신소년』을 무대로 활동하던 이들이 북한 아동문학 건설기를 만든 주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언급한 작가군 가운데 '재북' 아동문학가가 아니면서 '월북'하여

26) <평양예술문화협회>(1945.9.)와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이 결합하여 <북조선예술총연맹>(1946.3.25.)이 결성되고, 1946년 10월 다시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개칭.

27) 국가지식포털 북한지역정보넷: <http://www.cybernk.net>.

28) 일부 자료에는 출신지 '金川'이라는 점 때문에 '경북 김천시 출생'이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류덕제의 『한국현대아동문학비평사를 위하여』에 정리된 인물 정보에 의하면, '황해도 금천 출생'으로 되어 있다.

29) 1930년대부터 동화를 발표하다가 평양에서 동화집 『참새 학교』(1938)를 펴내기도 하였다.

30) 강훈은 대표 작품집으로 『산막집』(1957) 등을 내기도 했다.

북한 아동문학 건설기에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작가군으로 그 출신지 현황을 보면, 엄홍섭은 ‘충남 논산시’, 신고송은 ‘경남 언양’, 함세덕은 ‘경기 인천’,<sup>31)</sup> 임원호는 ‘충남 안산시’ 등이다. 한편 ‘평안남도 강서’ 출신인 동요작가 한정동은 ‘월남’ 작가로 알려져 있으나 그가 북한 아동문학계에 발표한 작품은 현재 확인하지 못했다.<sup>32)</sup>

이들 가운데 북한 아동문학 건설기를 대표하는 울주군 언양 출신의 신고송은 1932년 8월경 프롤레타리아 연극 건설을 목표로 강호, 송영, 권환 등과 극단 『신건설』을 결성하였으며 해방 후에는 <조선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의 중앙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다가 1946년 월북했다. 그 후 1949년 『농촌씨클 운영법』(국립인민출판사)을 출간하기도 했다.<sup>33)</sup> 그는 윤석중이 주재하던 『(주간)소학생』에 ‘어린이연극’ 『해가 지는 까닭』(1946.3.18.), 동요 『우리집 감나무』(1946.4.15.)와 『굴렁쇠』(1946.6.10.), 그리고 ‘아동극’ 『요술모자』(1946.7.8.) 4편을 발표했다. 송창일이 『아동문학』 제1집(1947.7.)에 쓴 『북조선의 아동문학』에 보면, 신고송이 “『어린이동무』 지상을 통해 가장 많이 노력한 작가”<sup>34)</sup>로 기술되고 있다. 이로 보면 신고송은 해방 후 남한과 북한에서 발행되던 아동문학 잡지에 두루 발표 공간을 넓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굴렁쇠 굴러간다 하나, 둘, 셋  
돌멩이가 있으면 돌아가고,  
또랑이 있으면 뛰어 넘는다.//  
굴렁쇠 굴러간다 하나, 둘, 셋

31) 함세덕(1915.5.23.~1950.6.29.)은 인천 강화군 출생으로 전남 목포와 인천에서 자랐다.

32) 물론, 향후 해방기에 창간되어 한국전쟁 전까지 발행된 북한 아동 잡지류가 좀 더 수집되어 확인될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33) 류덕재, 위의 책 108면.

34) 송창일, 『북조선의 아동문학』, 『아동문학』 1집, 1947.7.; 원종찬, 『북한의 아동문학』, 청동거울, 2012, 77면 재인용.

굴렁쇠 굴러가는 논두렁 길은  
꿀을 진 지게도 피해 간다.

- 신고송, 「굴렁쇠」 전문

이 동요는 신고송이 월북 전 남한 아동문학 잡지에 발표한 마지막 동요가 아닐까 추정된다. ‘구르고 바뀌는’ 세상 변화 속에서 장애물이 나타나면 돌아서 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구렁을 붙이며 전진해 나가는 ‘굴렁쇠’의 성질을 표현하고 있다.

해방 후 창간된 『주간소학생』은 윤석중을 중심으로 박목월·박두진·조지훈 등 ‘청록파’ 시인의 활동이 특히 두드러지고 있지만, 신고송·박세영·박태원·엄홍섭 등 월북 아동문학가들의 활동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해방 후 좌우 대립 속에서도 각종 문학 단체와 아동 잡지 속에는 그동안 분리되어 있던 남북 아동문학장이 일정 부분 혼란과 모색의 과정을 거치면서 동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이 장을 통해서 본고는 한국전쟁 전후 아동 잡지에 나타난 남북 아동문학 작가군의 이동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대표적인 월북 아동문학가인 윤복진(동요)·신고송(동요, 동극)·박태원(소설, 소년소설)·박세영(평론) 등의 아동문학 활동 무대의 이동과 그 작품 경향 변화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로 남한과 북한 아동 잡지류에 편재되어 있는 ‘월북’ ‘재북’ 아동문학가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 4. 한국전쟁 너머: 복원·조명해야 할 몇 아동문학가의 흔적

이번 장에서는 이번 연구를 수행하면서 확인한 복원·재조명해야 할

몇 아동문학가를 다룬다. 앞서 본고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한 한국 아동 문학장(場)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해당 시기 아동 잡지류를 검토 하면서 한국 아동문학 작가군이 어떻게 남과 북으로 이동해 갔는지 그 활동과 이동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본고는 남북 분단과 이념 장벽으로 파생된 ‘월북’ ‘남북’ ‘재북’ 등의 용어에 쓰워진 채 제대로 그 작품과 활동이 조명되지 못한 작가군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모든 용어들은 ‘북’이라는 ‘영토’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그 대표적인 작가군의 현황을 개괄해 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짚어볼 것은 한국전쟁 전 남한에서 발행된 아동 잡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나 북한 『아동문학』 내에서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작가군이 있다. 정지용, 최병화, 임서하, 현동엽 등이 대표적이다.

정지용에 대해서는 익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자세한 상술한 피하기로 한다. 다만 그는 정지용은 1946년 2월 <조선문학가동맹>의 아동문학 분과 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가 1949년 6월 <국민보도연맹> 결성 후 11월 다른 문인과 함께 강제로 가입되기도 했는데, 정지용에 대해서는 6.25전쟁 중 납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5)</sup>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정지용 동요가 한국전쟁 전후 북한 아동문학계에 발표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

최병화(1906~1951)는 서울 출생이며, 『별나라』 창간 당시부터 동인으로 참가하였다. 한국전쟁 전후 아동 잡지를 살펴보면, 최병화는 남한에서 발행되던 『어린이나라』, 『소학생』, 『소년(문화당)』에 활발하게 동화와 소년소설을 발표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이번 조사에서 북한 아동 잡지류에서 최병화의 흔적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가 과연 어떤 경로로 월북을 시도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월북을 시도’했다는 내용으로 ‘월북’의 오명의 덧쓰워져서는 안 될 듯하다. 최병화는 방정환이 창간한 『어린이』에 다수의 동화와 소년소설을 발표하였으며, 해방 후 1946년 어

35) 류덕제, 위의 책 191면.



린이날 전국준비위원회 53명의 위원 가운데 한 명으로 포함되기도 했다.

끝으로 ‘재북’ 아동문학가로 볼 수 있는 현동엽에 대한 내용이다. 한국전쟁 발발 전 현동엽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진 지면은 복간 『어린이』에 서이다. 『어린이』를 주재하던 개성 출신 고한승과의 인연이 있었던 것인지, 개성 출신 작가 현동엽의 작품이 유독 연재되는 것이 특징이다. 류덕제의 자료 연구에 의하면, 현동엽은 1929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현상에 동화 「눈물의 선물」(전3회, 조선일보 1929.1.4.~6.)이 당선되었고, 1930년 6월 17일에 <개성노동조합>과 <개성노동조합>의 집행위원으로 있었다. 현동엽은 ‘공산주의자’로 노동운동에 가담하였다는 증언이 있기도 하지만, 해방 후에는 ‘전선조선문필가협회’ 회원으로 참여한 데 이어, 1950년 6월 10일에는 개성극장의 ‘멸공응변대회’ 때 심사위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기도 했다.<sup>36)</sup> 현동엽은 개성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 아동문학가로, 해방 후 복간 『어린이』에는 복간호인 123호에 동요 「파리」(1948.5.), 「곰보아저씨」(1948.6.)를 연속해 발표하고, 동화 「모기와 황소」(1949.5.), 「장화를 신은 고양이」(1949.10.)를 발표하였다. 『어린이』에는 현동엽의 동요집 『알밤밤형제』에 실린 동요를 계속 재록해 주고 있음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그의 존재는 ‘재북’ 아동문학가로 기록되기에 석연치 않다. 그는 한국전쟁 전후 아동문학장 내에서 다시 조명되어야 할 아동문학가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가 거론한 아동문학가 외에도 한국전쟁 전후 한국 아동문학장에서 자취를 감춘 작가군은 더 발굴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며, 이런 점에서 한국전쟁 전후 남북 아동 잡지류의 자료 정리 및 수집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

36) 류덕제, 위의 책 222면.

### 3. 나오며

이상으로 본고는 1950년 6월에 발발한 한국전쟁을 전후 아동 잡지에 나타난 한국 아동문학 작가군의 남북 분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본 연구는 한국전쟁 전후 남북 아동 잡지류의 창간 및 발행 현황을 살폈다. 한국전쟁 발발 전에 이미 중단된 『어린이』(1948.5.~1949.12.)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동 잡지는 ‘1950년 5월~6월’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일제히 중단을 맞이하였으며, 북한 『아동문학』의 경우도 한국전쟁기에는 일시 휴간되었다가 다시 1954년부터 발행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기 남북 아동 잡지는 일부 이념적 선호 경향이 얼마간 있었으나 한국 아동문학 문단이 배타적 입장이 아닌 실질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소학생』과 『어린이나라』는 이를 잘 보여 주는 대표적 잡지이다. 북한 『아동문학』을 비롯하여 해당 시기 북한 아동 잡지류에서는 주로 ‘재북’ 아동문학가들이 중심이 되어 활약한 특징을 보였다.

다음으로 한국전쟁 전 남북 아동문학 잡지에 나타난 아동문학 작가의 이동 현황을 추적해 보았다. 먼저, 『어린이나라』를 주목하여 윤복진(동요)·박태원(소설, 소년소설)·박세영(평론)의 활동 경로를 주요 작품 경향 분석과 더불어 탐색해 보았다. 그 외 본고가 연구 대상으로 삼은 북한 아동 잡지류 내에서 볼 때 『아동문학』에서는 월북한 박세영, 『어린이동무』에서는 월북한 이성홍 아동문학가, 『소년단』에서는 강소천·장수철 같은 월남 아동문학가의 활동이 눈길을 끈다.

끝으로 한국전쟁 전 남한에서 발행된 아동 잡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나 북한 『아동문학』 내에서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작가군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으로 최병화, 정태병, 현동염을 주목했다. 이들은 각각 ‘월북’ ‘재북’ 등으로 구분되는 아동문학가들이지만 한국전쟁 후 북한 아동

문학계에서 작품 활동한 이력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본고는 '6.25전쟁'이라는 민족 동란이 새로운 아동문학 건설기를 맞이한 한국 아동문학이 적대적 대치의 문학으로 급선화된 현장을 만날 수 있었으며, 아동문학장 역시도 점차 교류 없는 단절의 분단 상황으로 나아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전쟁이라는 특수 상황과 남북 분단이라는 이념 장벽 속에서, 원만히 발전할 수 있었던 한국 아동문학장이 파행적으로 형성되고, 그 소속 작가의 내면에 정치적 억압 기제가 작용되어 실로 우리 아동문학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치명적인 장애 요소로 남게 되었음 또한 직시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념의 장벽에 가리어 묻혀 있던 한국전쟁 전후 한국 아동문학장 내에 있었던 아동문학가를 점차 발굴 조명해 나가는 한편, 한국 아동문학장의 분단을 해소하고 통합적 관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연구 방법이 남북 학술 교류 사업을 통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기본 자료

『조선대백과사전』 10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편

### 논문 및 평론

- 김명석, 「이동규 소설 연구」, 『우리문학연구』 23호, 우리문학회, 2008.2.  
김진희, 「김북원(金北原)의 문학사적 복원과 해방기 활동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68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9.
- 김제곤, 『윤석중 연구』, 청동거울, 2013.
- 김종현, 「박홍근의 월남 동기와 월남 직후 동시의 주체 형성」, 『한국아동문학연구』 31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016.12.
- 류덕제, 「아동문학가 박고경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5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9.12.
- \_\_\_\_\_, 「윤복진의 아동문학과 월북」,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7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5.12.
- \_\_\_\_\_, 『한국아동문학비평사를 위하여』, 보고서, 2021. 210면.
- 마성은, 「이북에서 발표한 강소천의 소년시·동요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28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015.5.
- 박세영, 「조선아동문학의 현상과 금후 방향」, 조선문학가 동맹편, 『건설기의 조선문학』, 1946, 97면.
- 송수연, 「강훈의 『산막집』 연구-해방기 북한아동문학의 변화양상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3호, 2013.12.
- 신정아, 「해방 후(1945-1950) 문맹퇴치를 주제로 한 북한아동문학의 전개양상과 창작방법-월남전 강소천 작품과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기술』 21호,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16. 8.

- 우지현, 『송완순 연구-송완순의 생애와 동요, 아동문학 평론 활동을 중심으로』, 『동아인문학』 35호, 동아인문학회, 2016.
- 원종찬, 『북한 아동문학』, 청동거울, 2012.
- \_\_\_\_\_, 『동요시인 윤복진 연구-북한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17호, 건국대 동화와번역연구소, 2009.
- \_\_\_\_\_, 『강소천 소고-해방기 북한체제에서 발표된 동화와 동시』, 『아동 청소년문학연구』 13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3.12.
- 유승환, 『해방기 박태원과 소년삼국지』, 『구보학보』 21집, 구보학회, 2019.
- 이동순, 『정태병 동화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26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014.5.
- 이순옥, 『권환의 삶과 문학 활동』, 『어문학』 95호, 한국어문학회, 2007.3.
- 이재철, 『남북 아동문학 연구』, 박이정, 2007.
- 이재철, 『세계아동문학사전』 ‘새벗’ 항목. 계몽사, 1989, 169면.
- 장정희, 『장수철 초기 동시론』, 『아동문학평론』 41권 1호, 아동문학평론사 2016.
- \_\_\_\_\_, 『아동 잡지 『어린이나라』(1949.1~1950.5)의 서지적 고찰』, 『근대서지』 2018년 겨울호, 근대서지학회, 2018.

#### 인터넷 자료

국가지식포털 북한지역정보넷 참조: <http://www.cybernk.net>

<Abstract>

A Study on the Differentiation Process of  
Children's Literature Writers in the  
Children's Magazine before and after the  
Korean War

Jang, Jeung-Hee\*

This paper studies the process of differenti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of Korean children's literature writers appearing in children's magazines before and after the Korean War, which broke out in June 1950.

First, I researched about children's magazines before and after the Korean War. Except for "Children(어린이)" (1948 May-1949.12), many magazines all ended in May-June 1950. North Korea's "Children's Literature" was also temporarily suspended during the Korean War and began to be published again in 1954. Through these investigations, I could see that there was an ideology that children's magazines at this time were pursuing, but they were not exclusive to each other, and practical exchanges were taking place.

Next, I tracked the author's movement in children's literature magazines in the south and north before the Korean War. First, I took note of "Children's Country(어린이나라)" The activities of Yoon Bok-jin (Children's Song), Park Tae-won (Novel, Boys' Novel), and

---

\*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k Se-young (Comment) were analyzed together with the changes in the work. I also identified several authors who were active in children's magazines published in South Korea before the Korean War but whose activities were not confirmed in North Korea. Typical examples are Jung Ji-yong, Choi Byung-hwa, Jeong Tae-byung, and Hyeon Dong-yeom.

This paper was able to meet the sudden transformation of Korean children's literature into hostile literature after passing the "Korean War"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Korean children's literature stage was also settled as a division of disconnection without exchange.

We need to discover and illuminate children's literature writers before and after the Korean War, who were buried in ideological barriers. In addition, a new research method that can view the division of Korean children's literature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should be derived.

Key Words: Korean War, Children's Literature in the South and North, Children's Country, Children's Literature, Yoon Bok-jin, Park Se-young, Hyun Dong-yum

■ 논문접수 : 2022년 03월 31일

■ 심사완료 : 2022년 04월 20일

■ 게재확정 : 2022년 04월 22일

